

연구 논문

제천의병과 거문돌 마을의 博約齋\*

구완희\*\*

- |                           |                   |
|---------------------------|-------------------|
| 1. 머리말                    | 4. 박약재 서당계 좌목의 분석 |
| 2. 거문돌의 지리적 조건과 강씨 문중의 내력 | 5. 맺음말            |
| 3. 박약재의 설립과 제천의병          |                   |

## 1. 머리말

근년에 마을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up>1)</sup> 이는 생활과 역사의 현장이었던 마을이 급속도로 사라지거나 변형되는 것에서 촉발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마을사 연구는 일반사 연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수많은 공백을 채워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런 연구는 마을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역사의 현장성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므로 중요하다.

그러나 제천의병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현장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제천의병에 관한 통사적 연구가 진행되었고,<sup>2)</sup> 지역 출신의 의병 지도자에 관

\* 이 논문은 2017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1) 임세권, 「마을사의 조사와 연구」, 『민속연구』 11, 2002; 이해준, 「마을사 조사와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연구』 12, 2003.

한 연구가 이어지기는 했지만,<sup>3)</sup> 주목할 만한 현장, 또는 마을 단위의 역사적 검토는 아직 시도된 일이 없다.<sup>4)</sup> 자료가 부족한 데다가 마을사에 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제천의병에 관한 연구의 공백인 마을에 관한 것이다. 첫 시도로서 제천의 거문돌 마을에 전하는 ‘博約齋’를 제천의병과 관련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제천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인 ‘의병대로’에 의병과 관련한 수많은 사연이 있고, 그 대부분은 거문돌 박약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거문돌이라는 작은 마을의 평범해 보이는 박약재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이다. 다행히도 의병사에 자취를 남긴 姜順熙(1868~1929)의 문집 『恥齋集』이 불완전하게나마 남아 있고,<sup>5)</sup> 박약재와 관련한 자료인 『書堂稷座目』도 전하기 때문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sup>6)</sup> 이러한 사례 검토를 통해 제천의병이 어떤 지역적 기반 위에 있었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 2) 구완회는 을미의병기에 제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유인석이 이끌었던 ‘호좌의진’을 제천 의병의 핵심으로 보고, 군대해산 뒤에 역시 ‘호좌의진’으로 자처한 이강년 부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서술했다(구완회,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1997).
- 3) 구완회, 「한말 을미의병기 張忠植의 생애와 의병노선」, 『朝鮮史研究』 13, 2004; 구완회, 「李胄承의 삶과 『徽菴集』」, 『내계문화』 15, 2004; 구완회, 「한말의 의병장 鄭雲慶의 생애」, 『조선사연구』 14, 2005; 구완회, 「한말의 의병론자 이기진의 삶과 사상」, 『지역문화연구』 5, 2006; 구완회, 「한말의 의병장 金尙臺의 생애와 항일투쟁」, 『지역문화연구』 10, 2011; 구완회, 「한말의 의병장 敬庵 徐相烈의 생애」, 『지역문화연구』 12, 2013.
- 4) 문학 부문의 성과로서 거문돌 출신의 소설가 강승원은 『남한강』을 통하여 그가 전해들은 제천의병의 후일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 작가는 식민지 시대에 의병의 후손들이 고향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고초를 겪은 데 건주어 친일 공직자들이 해방 뒤에 다시 지배자로 군림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소설화한 것이라고 했다. 강승원, 「작가의 말」, 『남한강』 1, 소담출판사, 1997, 6쪽; 권순궁,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복원(대담)」, 『남한강』 2, 제천·단양민예총, 1999, 15~16쪽.
- 5) 『恥齋集』은 元·亨·利·貞 4책 중 元을 제외한 3책이 전한다.
- 6) 『서당계좌목』은 강순희의 증손인 강인수가 소장하고 있다.

## 2. 거문돌의 지리적 조건과 강씨 문중의 내력

거문돌은 보통 오늘날 제천 두학동의 上風, 즉 바람부리를 가리킨다. 상풍 마을 앞에 새겨놓은 ‘玄岩’이란 표시가 그런 예이다. 그런데 그 이름은 오늘날 제천시 흑석동의 ‘黑石’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리고 흑석은 원래 지금의 두학초등학교 북쪽에 있는 마을이었고,<sup>7)</sup> 이미 18세기의 자료에 바람부리 마을과는 별개의 흑석, 곧 거문돌 마을이 나온다.<sup>8)</sup> 거문돌은 문학적 수사를 곁들여 ‘烏石’, 즉 까마귀처럼 검은 돌이라고도 일컬어졌다.<sup>9)</sup>

이 글에서는 거문돌을 과거의 거문돌과 바람부리 일대를 아우르는 말로 사용했다. 원래의 거문돌 마을은 오늘날 흑석동에 속하고, 바람부리 마을은 지금 두학동에 속하기에 혼란이 없지 않으나, 오랫동안 그렇게 일컬어졌기 때문이다. 바람부리의 남쪽에 있는 박약재를 ‘거문돌[오석]의 남쪽에 세웠다’고 한 기록이나,<sup>10)</sup> 이곳에서 오랫동안 터 잡아 살아온 진주 강씨 집안을 ‘거문돌 강씨’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거문돌은 본래 조선 시기 제천현의 東面에 속했던 지역으로 제천의 동쪽에 있다. 동면에는 거문돌과 바람부리 말고도 솔고개[松峙]·알미[酉谷]·매골[鷹洞]·가맛골[釜谷] 마을이 있었는데, 가창산에서 비롯하는 모라내[沙川]의 언저리인 학들<sup>11)</sup>을 중심으로 발달한 발농사 지대를 끼고 있었다. 교통로로는 영월 토교리 쪽으로 이어지는 조리재[鳥乙峙], 단양의 어상천 쪽으로 이어지는 갑산재가 있었다. 결국, 이 지역은 제천의 중요한 농사 터전인 동시에 교통의 길목에 자리잡은 셈이다. 그중 가장 큰 마을은 바람부리인데, 가창골로

7) 조선총독부, 『朝鮮五萬分一地形圖』, 제천(영주14호), 1918.

8) 『輿地圖書』 충청도, 제천현, 방리.

9) 『倡義事實記』 정미 4월 15일조; 정미 6월 14일조.

10) 『치재집』 亨, 「念修齋庭畔櫻桃詩序」.

11) ‘학들’이란 이름은 서쪽의 향교산에서 날아오른 두루미가 이곳에 떨어졌다는 전설에서 온 것이며, ‘頭鶴’이라는 마을 이름도 전설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데, 20세기에 들어와 행정동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빠져나가는 바람이 몹시 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림 1> 제천시 동면의 여러 마을들과 오늘의 행정구역



이 지역에서 중요한 자취를 남긴 이들은 거문돌 강씨라고 일컬어졌던 진주 강씨 사람들이다.<sup>12)</sup> 제천에는 조선 초기에 이미 제천을 본관으로 하는 강씨 집안이 거주했는데,<sup>13)</sup> 이제는 제천 강씨로 자처하는 이들을 찾을 수 없다. 지금 거문돌에 거주하는 이들은 조선 중기에 처음 거문돌로 들어온 姜信(1522~1592)의 후손들로 ‘진주’를 본관으로 한다.

강신의 후예는 아들인 姜天民(1560~1640)을 거쳐 손자인 商谷 姜瑜(1597~

12) 물론 거문돌에 강씨들만 살았던 것은 아니다. ‘제천향약’의 임원들만 보더라도 약정 이인영과 독홀 이규철은 경주 이씨, 직월 심천섭은 청송 심씨, 사정 김홍경은 강릉 김씨, 상례 이중봉은 덕수 이씨 등 다른 성씨들이고, 「염수재상량문」을 쓴 권필수도 안동 권씨이다. 모두 거문돌에 살던 이들이다.

13) 『세종실록지리지』 권149, 제천현.

1668)의 시기에 이르러 가세를 크게 떨치게 되었다. 강유는 16세에 진사시에 입격하고 성균관에서 공부한 수재였는데, 광해군 때 요직에 있던 친척이 폐모론에 동조하면서 그를 이 논의에 끌어들이려고 하자 제천으로 낙향하였다.<sup>14)</sup> 인조 반정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7년간의 낙향 생활을 청산하고 나아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섰으니 28세 때였다. 정묘호란(1627) 때 禮賓寺直長이라는 종7품의 미관말직에 있었는데, 청이 화친을 요구하자 강유는 누구보다 앞서 斥和를 주장하였다.<sup>15)</sup> 이듬해 청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쳐 돌아온 이들을 돌려보내라는 청의 요구를 연평부원군 李貴가 받아들여주고 하였을 때, 승정원 注書였던 강유는 그를 北宋 말년의 간신인 秦檜의 후계자나 다름없다면서 공박했다.<sup>16)</sup> 固城 縣監으로 있는 중에 병자호란(1636)이 일어나자 군사를 일으켜 조령까지 행군하였다가 청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효종 즉위 후, 강유는 북벌 사업의 선두에 섰다. 정주 목사, 성천 부사, 의주 부윤, 강계 부사, 함경도 남병사 등 서북의 지방관과 군직을 역임하면서 ‘장수의 재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京畿水使兼三道統禦使를 거치고 청의 허실을 알기 위해 사신이 되어 燕京에 출입했으며<sup>17)</sup> 황해도 관찰사에 나아갔다. 그러나 효종의 급서로 북벌 사업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후에도 掌隸院의 判決事와 수원 부사, 강릉 부사, 황해도 관찰사 등의 지방관직, 형조·호조참의와 여러 승지 직을 거쳤으며, 72세로 별세할 때는 호조참의로 재직 중이었다.

강유가 누린 영예는 사후에 더해졌다. 정조 때 편찬된 『尊周錄』의 ‘陪臣列傳’에 등재되어 ‘尊周大義’의 상징적 인물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순조 7년에

14) 『國譯商谷集』, 『忠穆公年譜』. 이하 강유의 경력은 기본적으로 연보를 따름. 『상곡집』은 근년에 ‘진주강씨상곡과중종’에서 국역 출판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姜瑜 著 / 金己 譯, 『(國譯)商谷集(이하 ‘국역상곡집’)』, 제천 晋州姜氏商谷派宗中, 2018.

15)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2월 경자(3일); 『국역상곡집』 권2, 문, 「척화소」(정묘 2월 3일).

16) 『국역상곡집』 권2, 文, 「請勿刷還走回人疏」(무진 7월 1일).

17) 이때 강유는 연경에 왕래하면서 견문한 기록을 효종에게 復命하였는데, 효종은 초본을 私家에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했기에 내용이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역상곡집』 권3 부록, 「연행일기」.

忠穆公이라는 시호를 얻게 된 것이나, 순조 31년에 黃江書院·樓巖書院·華陽書院·大老祠·太學 등 경향의 여론과 인근 지방관의 성원과<sup>18)</sup> 중앙 고관의 성원에 힘입어<sup>19)</sup> 南塘書院에 追配된 것도 이로 말미암은 바가 컸다.

지역사, 또는 마을사의 측면에서 볼 때 강유가 남당서원에 추배된 것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 이황을 배향했던 남당서원은 1580년에 제천 현감 金弘敏이 세운 것이고, 김홍민은 영남 출신의 명사로서 乞郡하여 제천에서 치적을 쌓았던 인물이었다.<sup>20)</sup> 따라서 남당서원은 오랫동안 제천에 거주하는 남인의 중요한 정신적 귀의처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강유를 추배하는 과정에서 金旼·吳珮 등으로 대표되는 남인 계열의 반대에 부딪쳐 일종의 鄉戰이 일어났다.<sup>21)</sup> 그러나 강씨 문중은 황강서원 등 노론계 서원의 여론을 이용하여 강유를 남당서원에 추배할 수 있었다.<sup>22)</sup> 결국, 이 무렵 진주 강씨 집안은 노론 계열로서 남인 계열로부터 남당서원의 주도권을 가져온 향전의 승리자였음도 짐작할 수 있다.

18) 『국역상곡집』 拾遺 권2, 追配實錄, 「通文」·「回通」·「敦請縉紳書」·「단양군수서간」·「영춘현감서간」·「청풍부사서간」.

19) 남당서원에 추배할 때 대신인 洪奭周(1774~1842)가 봉안문을 지었다고 하며(『晉州姜氏掌令公派世譜』 권1, 회상사, 1984, 17쪽), 『국역상곡집』에 「봉안축문」이 전한다.

20) 『蒼石集』 권1, 시, 「金沙潭文丈往在庚辰間」. 김홍민(1540~1594)은 상주 출신으로 당대의 명사였던 金範의 아들이며, 그의 아우인 弘微와 함께 선조의 촉망을 받았다. 李珥와 成渾이 봉당을 짓는다면 정치적으로 공격한 일이 있었기에 동서 분당의 시기에 동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다(『창석집』 권13, 잡저, 「沙潭傳」; 『大東野承』 「聞韶漫錄」; 『선조실록』 권 17, 16년 9월 3일(신사)).

21) 『국역상곡집』 습유 권2, 추배실록, 「題辭」. 김민·오염은 제천의 남인 세력에 속하는 예안 김씨, 동북 오씨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들이 반대하였던 것은 남인의 정신적 스승인 이황을 모신 남당서원에 서인 계열의 강유를 추가로 배향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편, 문중에서는 강유의 아버지인 강천민이 주부 朴仁傑(1588~?)과 함께 남당서원을 세우고 번갈아 원장을 맡았다고 하여 마치 남당서원을 강씨 문중에서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전하지만(강성열, 「博約齋傳」, 『獻誠錄』, 2008),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다. 남당서원은 1580년에 제천 현감 김홍민이 세운 것으로 당시 강천민은 21세에 불과했고, 박인걸은 태어나기도 전이다. 박인걸은 제천에 거주하던 인물로 선조 말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홍원 현감을 거친 인물이다. 『사마방목』 참조.

22) 황강서원과 화양서원, 대로시는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송시열을 배향한 서원이었고, 그중 황강서원은 송시열의 수제자였고, 이 지역에서 강학 활동을 했던 권상하를 배향한 곳이기도 했다.

이런 점은 강유에 관한 강순희의 평가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말의 의병론자였던 그는 강유가 송시열의 노선을 따르면서 春秋義理를 주장하고 실천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정묘년(1627)에 만주의 오랑캐들이 일으킨 난리를 만나 낮은 벼슬아치이면서도 춘추 의리를 상소하여 진술하였다. 우리 효종대왕 때 이르러 장차 큰 일을 하려 하여 華陽夫子[송시열]를 극진히 모시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대책을 물으셨다. 이에 선생이 당시 오랑캐와 화친하는 것을 배척하는 어진 이들과 더불어 조정애 함께 나아갔으니, 안으로 경연에 참석하고 밖으로는 변방을 지키는 책임을 맡아 임금과 마음이 통하였고 나라를 위한 대책은 빈틈이 없었다. 비록 운수를 어쩔 수 없어 큰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하늘의 이치가 이로써 밝아졌고 사람의 윤리가 이로써 세워졌다. 군신·부자의 의리와 華夷의 예법을 가른 것은 세상을 반듯하게 세우고, 백 세 뒤까지 기릴 만하였다.<sup>23)</sup>

결국, 19세기 말, 강씨 집안은 조선 후기의 집권 세력이라고 할 만한 서인·노론의 전통을 잇는 집단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강유 이후에 뚜렷한 관료 경력자를 배출하지 못하였는데도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강유 같은 이름난 조상을 내세울 수 있었고, 그것이 조선 후기의 집권 세력인 노론의 역사 의식과 잘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송시열의 사상적 계승자인 권상하의 후예들이 제천 일대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것도<sup>24)</sup> 거문돌 강씨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거문돌과 바람부리, 중말에 대대로 거주하면서 향촌 사회를 이끌어 나갔고, 1831년에 이르면 李滉(1501~1570)을 배향한, 제천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남당서원에 강유를 從享할 수 있을 만큼 가문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23) 강순희, 「念修齋記」, 『치재집』 리.

24) 구완희, 「권상하의 황강 이주와 재지사족의 성장」, 『한국철학연구』 35, 2012.

### 3. 박약재의 설립과 제천의병

현재 거문돌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사적지는 박약재이다. 박약재는 강유가 글을 읽던 옛터전에 세운 강씨 집안의 講堂으로서 1893년 봄에 세워졌다. 姜秀馨(1807~1886)이 1881년에 처음으로 뜻을 모아 재물을 모으고 계를 조직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의 아들인 강순희가 마무리하고 ‘念修齋’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처음 뜻을 세운 뒤 10여 년이 지난 후였다.<sup>25)</sup>

염수재는 『詩經』에 나오는 ‘너의 조상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 덕을 닦을지 어다[無念爾祖 聿修厥德]’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즉 강유와 같은 훌륭한 조상의 덕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닦으라는 뜻이다. 강유가 글을 읽던 터전에 강순희 부자가 이런 이름을 내걸었던 뜻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강유의 학문과 사상, 실천을 따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강순희는 염수재를 세우던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아아, 오늘이 어떠한 세상인가. 천지가 뒤집히고 의리가 감감해졌으며 복색이 잘못 바뀌었으며 샅된 주장들이 마구 흘러넘치니, 또한 지난날 병자 정묘년에 견줄 것이 아니다. 한걸음이라도 어긋나면 사람과 짐승으로 갈라지며, 한 생각 향하는 것에 따라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 이곳 염수재에 오르는 이여,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어지러움이 극도에 이르면 잘 다스려지는 세상을 그리워한다. 이치를 파고들어 보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시경』의 匪風과 下泉의 章이 變風의 攄머리에 놓인 것이다. 一陽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陰이 쌓인 가운데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 이곳 염수재에 오르는 이여, 감동이 없을 수 있겠는가?<sup>26)</sup>

이처럼 강순희는 19세기 말의 상황을 그의 조상인 강유가 정묘호란·병자호

25) 강순희, 「염수재기」; 권필수, 「강당상량문」(1893.3.25).

26) 강순희, 「염수재기」.



란을 겪으면서 만주족을 물리치자고 주장할 때보다 더 엄중한 때로 이해했다. 개항 이래 거칠게 몰려오는 외세 앞에 당혹감을 느꼈던 보수 유생들로서는 당연한 생각이었다. 일본 상인 세력의 진출로 소상공인·농민층이 몰락하는 상황이었고, 잇따른 教案 사건에서 보듯이 외국인 신부들이 治外法權에 기대어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흐름에서 제천도 예외가 아니었다.<sup>27)</sup>

아울러 강순희는 혼란이 극에 이르면 다시 희망의 시기가 온다고 믿었다. ‘一陽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했던 그의 논리는 ‘碩果不食’의 논리로 희망을 말하던 제천의병 격문에 나타난 논리와 꼭 같다.<sup>28)</sup> 치열한 각성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희망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식에 따라 강순희는 다음의 실천 과제를 천명했다.

이제 선생의 뒤를 따를 이는 이곳에서 학문을 닦아라. 여기서 익숙하게 익혀라. 염수재 건물에 오르면서 숙연히 공경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방에 들어가 있을 때는 조상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정도로 정성을 다하라. 분해하면서 탄식할 것이며, 용감하게 일어서라. 세상 사람이 숭상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공명과 이익 때문에 뒤섞이지 말라. 덕을 세우는 일을 서로 권하고 도의로써 함께 연마하라. 눈을 부릅뜨고 용기를 내고, 몸을 던져 뜻과 학문의 기준을 세우라. 하늘의 이치를 밝히고 인심을 바르게 하고 中華를 존중하고 오랑캐 물리치는 것을 요체로 하여 죽을 때까지의 사업으로 삼으면, 좋은 풍조가 번져나가 ‘갓옷만 보아도 누구 솜씨인지를 알 수 있듯이’ 되리니 푸른 것을 보고 쪽[藍]에서 온 것을 알도록 한다면 조상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였다고 할 만하다. ... 진실로 이같이 하면 염수재를 설치한 것이 어찌 단지 한 집안의 사사로운 다행일 것인가. 실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에 비추어 보아도 다행일 것이다.<sup>29)</sup>

27) 제천의 배론 마을에는 일찍부터 천주교 세력이 들어와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을미의병 초기에 제천에서 일본 상인이 살해된 일이 있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9, 1~2쪽).

28) 『檄告八域』에서 말하는 ‘碩果不食’의 논리는 ≡≡≡ 위에 ≡≡≡가 얹힌 형상인 剝卦를 설명하는 논리이다. 음의 기운이 극성한 위기의 상황이지만, 새로운 희망의 단초가 그 안에 있다는 희망의 논리, 즉 ‘回陽’의 논리이기도 하다. 유인석, 『檄告八域』, 『湖西義兵事蹟』.

29) 강순희, 「염수재기」.

이처럼 염수재의 記文은 격문이나 다름없는 격렬한 정서를 담고 있었다. 조상의 뜻에 공감하여 결국은 ‘중화를 존중하고 오랑캐 물리치는 것’을 죽을 때까지의 사업으로 삼으라고 강조했다. 그런 주장은 을미의병 당시에 유행하던 격문에 자주 들먹여지던 구호였다. 즉, 거문돌에는 의병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척화의 분위기가 넘치고 있었다.

한편, 염수재가 세워지던 시기는 화서학과가 제천에 정착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李恒老(1792~1868)를 스승으로 받들었던 화서학과는 한말의 衛正斥邪 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이항로의 제자인 柳重教(1832~1893)가 제천의 長潭 마을에서 강학하기 시작한 것이 1889년 가을이었다. 거문돌에서는 姜蘭秀(1861~1922)가 제일 먼저 장담의 향음례에 나아갔다.<sup>30)</sup> 이때 문중의 姜駿會(1828~?)는 賓丈으로 초대받았다.<sup>31)</sup> 결국, 유종교가 四郡[제천·청풍·단양·영춘의 네 고을] 지역으로 내려와 강학할 때,<sup>32)</sup> 이미 斥邪 성향을 지녔던 제천의 진주 강씨 문중이 적극적으로 화서학과에 가담하게 된 셈이다.

특히, 염수재 기문을 짓던 때는 유종교가 별세한 직후였다. 이때 장담의 선비들은 급변하는 현실 속에 스승의 부재에서 오는 절망감, 스승의 뜻을 계승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는 강순희의 붓을 빌려 염수재 기문에 나타났다. 결국, 염수재의 건립은 얼마 후 단발령을 맞아 일어난 의병항쟁의 길에 강씨 문중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직접적인 출발점이 된 셈이다.

을미의병의 시기에 강씨 문중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로는 姜翼秀(1853~1906)가 있다. 강익수는 집안을 대표하여 아우인 강란수를 의진에 내보내고, 아들 姜明熙(1885~1960)를 유인석의 문하에서 공부하도록 하였다.<sup>33)</sup> 강순희도 강

30) 『長潭講錄』 신묘 9월 27일.

31) 강준희는 족보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화서학과와 이미 교감하던 중요한 인물로 짐작된다. 1900년 5월에 화서학과와 주요 인물인 崔益鉉이 경주를 유람하러 가는 길에 의림지를 보고 장담으로 가는 길에 檀溪에 들러 寅谷 강준희를 찾은 일이 있다고 한다. 『勉菴集』, 부록 권3, 연보, 경자년 5월. 여기서 ‘단계’는 『장담강록』에 강준희의 거주지로 나오는 ‘桐溪’의 오키로 짐작한다. 지금의 제천 금성면 월굴리에 있던 마을로 수몰되었다.

32) 구완희, 「성재 유종교의 강학과 문인집단의 확대」, 『역사교육논집』 44, 2010.

란수와 함께 의진에 나아갔다.<sup>34)</sup>

뒷날 1905년 음력 3월, 유인석이 두 번째 망명에서 돌아와 제천을 찾았을 때도 이곳에서 강의 자리를 마련했다.<sup>35)</sup> 이 무렵 강씨 문중의 여러 젊은이가 유인석과 스승과 제자의 의리를 맺은 것으로 짐작된다.<sup>36)</sup> 이때 강순희가 유인석의 글씨를 받아 강당의 이름을 ‘박약재’로 이름을 바꾸었으니 『논어』에 이른바 ‘博文約禮’의 준말이다. ‘널리 배우고[知] 예로써 단속한다[行]’는 말이니 염수재를 세웠던 본래의 뜻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요체는 배워서 알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인석이 이곳을 다녀갈 무렵, 박약재에서는 유인석의 의병 사업에 호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다. 이미 강씨 문중은 유인석의 지시에 따라 실시 중이던 제천향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sup>37)</sup>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頭鶴五里洞約’을 실시하였다.<sup>38)</sup> 그뿐만 아니라 강순희 등은 隆義契를 결성하여 화서학과에서 중시하던 문장들을 모아 『隆義彙編』을 편집하고 봄·가을로 강론하였다.<sup>39)</sup> 그들의 내세웠던 관심은 ‘선생의 마음을 몸받고, 선생의 가르침을 밝히고, 선생의 의리를 지키고, 선생의 사업을 행하여 오랑캐가 되고 짐승이 되는 것을 면하자’는 것이었다.<sup>40)</sup> 여기서 ‘선생’이란 말할 것도 없이

33) 유지혁, 「玄岩姜公行狀」, 『陽庵集』 권3; 강순희, 「族叔玄巖公行狀」, 『치재집』 형; 강순희, 「祭族叔玄岩翼秀文」. 『치재집』 리.

34) 강난수, 「(이강년)제문」, 『雲岡遺稿』 3; 『장충식일기』 병신 3월 1일; 『장익환일기』 병신 3월 2~4일; 강달희, 「再從兄恥齋居士六十一歲生朝壽序」·「祭再從兄恥齋公文」, 『菊史集』.

35) 「유인석연보」에는 1905년 3월 7일에 제천의 향교[校宮]에서 강회했다고 한다. 염수재에서의 강회는 그 후의 일로 여겨진다. 이하 본문에서의 월 표시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음력을 가리킨다.

36) 족보에서는 강익수의 아들인 강명희, 동생인 강학수·강란수, 그리고 강순희·강달희 등을 유인석의 문인으로 보았다. 『진주강씨장령공파세보』(1984).

37) 동면의 약정은 흑석에 살던 李仁榮이 맡았는데, 강달희·강명희·강수명 등 거문돌에 살던 이들이 참여했다. 『堤川西面鄉約契冊』 「제천향약임원좌목」. 의병론자들이 중심이 된 제천향약은 일진회에 맞서기 위한 척사적 성격을 띤 향약이며, 같은 성격의 향약이 이웃의 청풍·단양·충주 등지에서 실시되었다. 최재우, 「한말 제천지방 향약의 위정척사적 성격」, 『충북사학』 2, 1989.

38) 강순희, 「頭鶴五里洞約序」, 『치재집』 형.

39) 강순희, 「呈李習齋直愼書」, 『치재집』 형; 강달희, 「隆義契彙編跋」, 『국사집』.

유인석을 가리키며, 선생의 사업이란 의병 봉기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결국, 강유라는 먼 조상을 본받자는 거문돌 강씨 문중의 지향은 눈앞 현실 속에서 역사 과제를 용감하게 실천해 나가는 유인석이라는 훌륭한 상징을 만나면서 의병 항쟁이라는 실천 운동으로 나타나게 된 셈이다.

을미의병이 마무리된 후 다시 의병이 일어나기까지의 과도기에 박약재는 의병론자들의 거점이 되었다. 이 시기에 지역 사회의 의병론자들이 전개한 여러 활동에 박약재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강씨 문중은 李昭膺(1861~1928)을 비롯한 선비들이 주도하여 장담 마을에 紫陽影堂을 세울 때도 앞장섰다.

자양영당은 일찍이 유증교가 朱熹·宋時烈·이항로 세 스승을 존경하면서 영정을 모셨던 것에서 출발했다. 세 스승 모두 을미의병 때 그들이 내세웠던 척사의 상징적인 지도자라고 할 만한 이들이었다. 따라서 을미의병 당시에 '도적 배[匪賊]'로 비난받았던 그들로서는 영당을 세우는 일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의식을 다시 천명하고 확인하고 싶어 했다. 따라서 박약재의 설립 운동은 의병 항쟁의 연장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자양영당의 건립은 박약재를 이끌던 거문돌의 강익수·강순희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1906년에 준공한 자양영당의 건설 과정에 거문돌의 진주 강씨 문중은 2,000냥 남짓한 전체 모금액 가운데 200냥이라는 큰돈을 냈고, 이는 '晉州姜氏博約齋中'에서 낸 것으로 관련 문서에 기록되었다. 제천 부근에서 참여한 몇몇 문중 가운데 가장 큰돈을 낸 것이다.<sup>41)</sup> 영당 창건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이소응은 거문돌의 진주 강씨 문중에 특별한 고마움을 표했고,<sup>42)</sup> 유인석도 강익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강씨 문중이 마음과 힘을 특별히

40) 강달희, 「을의계휘편발」, 『국사집』.

41) 이때 거문돌의 진주 강씨, 천남의 완산 이씨(100냥), 하진의 의흥 박씨(40냥), 장금터의 진주 강씨(50냥), 단양 옷바위의 충주 지씨(10냥) 문중이 참여했다. 『朱夫子影堂營建助役記』 참조. 그중 옷바위는 의병론자였던 지원영의 집안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42) 이소응, 「答博約齋僉君子：姜奎夏·姜學秀·姜斗永·姜秀年」, 『習齋集』 권19, 書. 여기서 수신인인 강규하(강대직)·강학수·강수년은 서당계좌목에 등재되었고, 강두영은 좌목에 나타나는 강달하의 아들이며, 강수명(강명수)·강수빈의 아버지이다.

많이 써 준 것'에 관하여 감사했다.<sup>43)</sup> 결국 박약재는 거문돌의 강씨 문중을 상징하는 곳이 된 것이다. 뒷날 강순희는 자양영당에서 유사로 활동했다.<sup>44)</sup>

자양영당을 위해 힘을 기울이던 시절, 거문돌 선비들은 의병을 다시 일으키는 문제로 고민했다. 1906년 8월에 金鴻卿(1873~?)과 姜秀斌(1875~1915)은 이강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의병을 일으킬 실력과 시기가 어떤지에 관한 고민을 전했다.<sup>45)</sup> 김홍경이나 강수빈은 모두 거문돌에 살던 선비였고,<sup>46)</sup> 이강년은 둘째 며느리를 거문돌의 강씨 집안에서 맞아들일 만큼 유대를 강화하고 있었다.<sup>47)</sup> 단발령 뒤에 일어난 을미의병 때 이미 의진에 가담했던 단양 옷바우의 池源永(1872~1906)도 이 무렵 거문돌로 옮겨 살고 있었다.<sup>48)</sup>

1907년 이강년이 봉기하였을 때도 거문돌은 중요한 연락 거점이었다. 4월에 이강년이 봉기할 때 '제천의 동쪽[堤東]'에 있었다는 기록이나, '오석'에 머물면서 정보를 주고받은 기록에 보이는 '제천의 동쪽'이나 '오석'은 거문돌의 박약재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다.<sup>49)</sup> 군사적인 면에서도 거문돌은 제천에서 단양의 어상천 쪽으로 나가는 통로였으니만치 의병들의 중요한 이동 통로이

43) 『毅菴集』 권12, 서, 「答姜敬甫 翼秀」(병오 7월).

44) 『影堂有司錄』, 『紫陽影堂焚香記』.

45) 그들은 '세상의 화가 갈수록 심해져서 조선사람이 모두 파멸하는 재앙이 눈앞에 닥쳤다'고 보고, '사는 것보다 더 절실히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맹자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형세와 시기가 의병을 일으킬 만한지를 상의했다. 김홍경·강수빈, 「上書」(병오 8월 5일).

46) 『堤川隴約』 참조. 향약에 따르면 1904년 말 제천향약을 조직할 때 동면의 司正을 맡았던 김홍경은 '혹석'에 살던 강릉 김씨였다.

47) 족보에는 이강년의 둘째 아들 공재의 짝이 진주 강씨라고 한다(『진주이씨효령대군정효공파세보』 권1, 71쪽). 일제의 기록에 따르면 이강년의 아들 李聖武가 거문돌 姜斗永의 집에 와서 이장 문제를 의논한다는 기록이 있다(「충북경비수 제246호(적괴이강년유혜이장의 건, 1908.11.9)」, 『독립운동사자료』 12, 452쪽; 「고비수 188호의 1(1908.11.11)」, 『독립운동사자료』 12, 455쪽; 「충북경비 246호의 3(적괴유혜이장의 건, 1908.12.2)」, 『독립운동사자료』 12, 602쪽; 「충북경비수 359호(1908.12.14)」, 『독립운동사자료』 12, 605쪽). 여기서 이성무는 이공재를 말하고, 강두영은 이공재의 장인이다. 이강년의 장례 때 강두영의 아들인 강수명이 지은 제문이 남아 있어 두 집안 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운강유고』 권3, 제문).

48) 『제천향약』 참조. 제천향약에서 執禮를 맡았던 지원영은 동면 상풍(바람부리)에 살았다고 하니 거문돌이다. 박약재에서 훈장 노릇을 할 때일 것이다.

49) 『창의사실기』, 「정미춘」.

기도 했다.<sup>50)</sup> 강순희는 이강년의 참모로서 활동했다.<sup>51)</sup> 강학수·강수명·강수빈 등도 이강년의 휘하에서 활동했다. 결국, 의병을 준비하고 활동하는 과정에 거문돌이 중요했으며, 그 중심에 박약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거문돌이의 박약재가 단순한 한 집안의 講堂을 넘어서 특별한 신념의 공간, 실천의 공간이 되었음을 말한다. 나중에 의병전쟁의 과정에서 제천향교가 불에 탔을 때, 불길에서 구해낸 성현들의 위패를 박약재로 옮기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sup>52)</sup>

1915년 제천의병 지도자 유인석이 요동에서 별세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문인들은 이곳에 분향소를 마련하였다. 철을 지나고 加麻를 벗을 때도 박약재에 모여서 곡하였다.<sup>53)</sup> 그보다 앞서 1908년 가을에 이강년이 순국한 후 유해를 제천으로 옮겨 거문돌의 장치미에 장사할 때도 사돈인 강씨 집안이 이를 주도했고,<sup>54)</sup> 1911년 가을, 오랫동안 이강년과 함께 의병을 이끌었던 동지인 金尙台(1862~1911)가 대구감옥에서 순국한 후 유언에 따라 이강년의 무덤 곁에 묻힐 때도<sup>55)</sup> 박약재는 통곡의 소리로 미어졌을 것이다. 지금은 두 의병장의 무덤이 모두 장치미를 떠났지만, 거문돌과 박약재는 한말의 의병항

50) 이강년이 1907년 4월에 봉기했을 때, 제천에서 저녁에 출발하여 오석[거문돌]의 강씨네 강당[박약재] 앞에 잠시 머물면서 청풍 선비 元亨熙를 보내 (아마도 박약재에 훈장으로 머물고 있던) 朴貞洙와 만난 후 갑산을 지나 임현으로 이동했다. 『창의사실기』 정미 4월 15일.

51) 『雲崗先生倡義日錄』, 『將任錄』.

52) 제천향교가 일본군의 방화로 불에 탄 것은 1907년 7월 12일이라고 하지만(제천군지편찬위원회 편, 『제천군지』, 1969, 199쪽), 천남 전투가 있었던 날은 7월 7일이고, 일본군이 제천을 불지른 것은 15일이므로 15일이 옳을 것으로 본다. 향교의 위패를 박약재에 두었던 기간에 관하여는 1년간이라는 주장과 향교를 중건할 때까지 16년간이라는 주장이 있다(강성열, 『박약재사적비』, 『자양영당백년』, 2006; 이종훈, 『제천향교의 연혁』, 『堤川鄕校誌』, 2003, 485쪽).

53) 강순희·이정규·신광목, 「제문」, 『의암집』 권57, 부록.

54) 이강년은 1908년 9월 19일(양력 10월 13일)에 순국하였고, 이튿날 그의 선조인 효령대군의 무덤이 있는 과천의 立義洞으로 운구되어, 21일에 出殯하고, 29일에 成服하였다. 이때 거문돌의 여러 선비가 달려가 곡했다. 장치미에 묻힌 것은 11월 20일(12월 13일)이다. 『哀感錄』(운강이강년기념관 소장) 참조.

55) 김상태는 7월 29일(9월 21일)에 순국한 뒤, 9월 12일(11월 2일)에 장치미에 묻혔다. 강순희, 「祭金正陸尙台文」, 『치재집』 리; 정운경, 「祭白愚金公尙台文」, 『松雲集』 권4; 『조선총독부관보』 제326호(1911.9.27).

쟁과 관련하여 잊을 수 없는 성지였던 썸이다.<sup>56)</sup>

이강년과 김상태가 순국하면서 지역 사회에서의 의병 활동은 현저하게 잦아들었다. 그 뒤로 박약재는 의병론자들이 의병사를 편찬하는 곳이 되었다. 『雲岡先生遺稿』를 편찬한 곳이 박약재이기 때문이다. 그 첫 시작은 1916년 3월 한식, 이강년의 무덤가에 모여든 동지들로부터였다. 『恥齋集』에 실려 있는 강순희의 「通告同志士友書」는 당시의 상황을 말해 준다.

삼가 생각건대, 의리로써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는 것은 하늘의 이치며, 힘을 기울여 죽음에 보답하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입니다. 얼마 전에 운강 이공께서 춘추의 의리를 붙들고 죽음에 이르도록 노력하시는 모범을 보이신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지탱하고 사람의 도리를 뿌리내리게 하신 것이니 세상에 당당하고 해와 달처럼 빛나게 한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천지가 내린 바른 성품[正性]과 부모님이 남겨주신 몸뚱이를 보전하게 하셨으니 어느 것인들 공께서 남겨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무릇 하늘을 이고 땅을 디디고 사는 우리 인간이라면 그 의리를 지키고 그 덕을 갚고자 생각하는 것이니 진실로 뼈가 가루가 되고 몸뚱이가 부서진다고 하여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힘이 미치는 것임에랴!

공께서 가신 후 무릇 모든 일은 뒤에 죽을 이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사정이 급하여 어쩔 줄 몰라 하여 어디고 머물 곳이 없는 것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집안일을 말하자면 변변찮은 식량이 여러 번 비어 양식을 잊지 못하여, 늙은 아내와 어린 손자는 구렁 앞에 서 있습니다. 뒷날에 전하는 일로 말하자면 조각 문자와 남긴 말씀이 흩어져서 깊숙이 감춘 자료까지도 지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하에 계신 공의 영령이 이런 것에 자잘하게 신경 쓰실 수 없습니다. 만일 선생의 의리를 사모하는 자라면 어찌 이런 상황을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군자들에게 고하노니 힘닿는 대로 공한 사람을 돌보아주시면, 한나라 때 재물로써 사람을 구제한 명사들인 八廚처럼 옛날에만 아름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천 번, 만 번 널리 양해해 주시면 크게 다행일 것입니다.<sup>57)</sup>

56) 이강년·김상태 의병장의 무덤이 있던 터는 필자가 2015년 4월 24일에 거문돌에 거주하는 백영진 님의 도움으로 신항선 님과 함께 답사하여 확인했다.

57) 『치재집』 형, 「通告同志士友書」.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이강년의 공로를 높이고 보답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강년의 남은 유가족의 어려움과 의병 기록을 후세에 전하여야 한다는 상황 인식을 전하고, 끝으로 이런 의로운 일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뒤에 약간 수정되어 ‘敬通’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퍼졌다. 발기인으로 幼學인 鄭述源(1860~1931)·강순희·李九永·鄭雲慶(1861~1939), 참관인 尹正炳, 유학인 申櫛, 1843~1926)·金源基, 전 군수인 鄭憲燮, 전 參領 朴昌煥, 유학인 강란수·辛光默(1872~1949), 전 正尉 金善浩, 유학 丁達教·강명희 등 14명의 명단을 열거하였다.<sup>58)</sup> 대부분이 제천 거주자이고, 거문돌에 살던 이는 강순희·강란수·강명희 등 적어도 3명이다.

이러한 논의가 출발점이 되어 편찬된 것이 『운강선생유고』(이하 『유고』)이다. 『유고』는 3책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제1책에서는 이강년의 문장을 주로 모았고, 제2책은 이강년의 의병투쟁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한 『창의사실기』이다. 제3책은 이강년이 순국한 뒤에 작성한 제문류가 대부분이다. 『유고』의 편집을 대략 마무리한 것은 강순희가 『창의사실기』 발문을 작성한 1916년 11월 무렵으로 짐작된다.<sup>59)</sup>

그중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강년의 구체적 투쟁기록을 담은 『창의사실기』이다. 처음 편찬 작업을 시작한 것은 제천의병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지녔던 朴貞洙(1857~1917)였는데,<sup>60)</sup> 얼마 뒤에 건강이 나빠져서

58) 운강이강년기념관에 전하는 「경통」 참조.

59) 현전하는 『유고』는 출판을 위해 각 행마다 글자 수까지 맞추어 놓은 상태이므로, 그 편찬 시기가 공식적인 출판을 앞둔 시기, 즉 해방 후 『운강선생창의일록』을 발간하던 시기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제1책 말미 부록에는 1939년에 이정규가 작성한 이강년의 행장이 있어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행장 부분은 사실과 근거를 중시하여 서술한 다른 부분과 달리 과장이 많이 섞였다는 점에서 매우 이질적이다. 따라서 행장은 이미 마무리되어 전하던 『유고』에 뒤늦게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유고』의 편찬을 일단락 지은 것은 「창의사실기」를 마무리짓던 시기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0) 장담에 출입하며 유증교의 가르침을 받던 박정수는 단발령 이후에 봉기한 제천의병의 역사를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로, 을사년에 있었던 원용팔 의병장의 봉기 전말을 『義士三戒元公乙巳倡義遺蹟』으로 정리했고, 군대해산을 전후한 시기에 봉기한 이강년부대의 활동을 정리한 『창의사실기』의 기본 뼈대를 세우고 집필을 시작한 인물이다.



일을 마무리한 것은 강순희이다.<sup>61)</sup> 박약재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이 작업 때문에 강란수가 잡혀가서 옥고를 치렀다는 말이 문중에 전한다.<sup>62)</sup>

비밀스럽게 편찬된 『유고』는 박약재의 기왓장 아래에 감춰졌다. 공개적인 출판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초고본 상태로 간신히 살아남았다. 강순희가 재종제인 강달희에게 전한 자료는 다시 강순희의 장자인 姜仁遠에게 전하여져 해방을 맞았다.<sup>63)</sup>

이 자료는 해방 후에 영남 쪽으로 전해져 목판본 『雲崗先生倡義日錄』(1948년 발간, 이하 『일록』), 『운강선생문집』(1949년 발간)을 출판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해방 후의 들뜬 분위기가 속에서 수많은 오류와 축약, 왜곡이 있었다. 특히 먼저 간행한 『일록』이 문제였다. 의병 사실을 과장하고 윤색하였으며 개인이나 문중의 이해를 반영하며 여러 기록이 덧붙여지거나 삭제되기도 했다. 이강년이 고종으로부터 받은 ‘都體察使’의 자격으로 팔도의 의병을 총지휘하는 ‘都倡義大將’이었다는 주장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湖左義兵大將을 자처했던 이강년의 영전에 바쳐진 제문도 도창의대장에게 바치는 형식으로 변조되었다.<sup>64)</sup>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지닌 『일록』이 먼저 한글로 번역되어 보급되는 바람에 이강년의 의병투쟁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사라진 줄 알았던 『유고』가 기적적으로 제천에서 발견되었다. 유종교의 옛집에 잠시 머물다가 지금은 제천의병전시관 수장고에 보관된 『유고』 덕택에 우리는 그동안 크게 의존했던 『일록』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sup>65)</sup> 일일이 근거를 밝혀가면서 투쟁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는 『창의사실기』가 이곳 거문돌 박약재에서 작성되고

61) 강순희, 「〈창의사실기〉발문」(구원회 역, 『국역 창의사실기』, 다운샘, 2014, 137~138쪽).

62) 진주강씨박사공과대종회에서 근년에 발간한 족보에는 강란수가 이 일로 2년간 옥고를 치렀다고 하고(『晉州姜氏大同譜』 4, 2009, 창문사, 178쪽), 『제천군지』에는 46일간 옥고를 치렀다고 하여 차이가 있다.

63) 강성열 님과의 인터뷰(1996.1.30).

64) 구원회, 「한말 의병장 이강년의 생애와 『운강집』」, 『雲岡集』, 내제문화연구원, 2007; 구원회, 「정미의병기 의병부대의 연합과 갈등」, 『제천의병의 이념적 기반과 전개』, 이회, 2002.

65) 근년에 『창의사실기』는 구원회에 의해 처음으로 완역되었다(구원회, 『국역 창의사실기』, 다운샘, 2014). 여기서는 자료에 등장하는 수많은 지명을 고증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보관되었다는 것, 박약재가 제천의병 역사 편찬의 현장이었다는 것만으로도 박약재는 제천의병사에서 잊지 못할 곳이다.

#### 4. 박약재 書堂稷座目的 분석

박약재는 일차적으로 문중의 자제들을 위한 강학의 공간이었다. 마을에서는 이곳에 문중의 장로나 학문이 높은 선비를 훈장으로 모시고 강학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동이 있는 집에서는 매년 일정한 곡물을 내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기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헌적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림 2> 박약재 서당계좌목



한편, 염수재를 처음 세울 때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한 기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수형이 염수재를 세우기 위해 '계'를 조직하였다 함이 그것이다.<sup>66)</sup> 이와 관련한 자료로서, 문중에는 문서가 하나 전한다. 문서의 제목은 따로 없고, 내용은 '書堂稷序'와 '書堂稷座目'으로 나뉜다. 이는 원

자료는 아니고, 박약재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 강순희의 아들인 강인원이 1959년에 필사한 자료로서 3장 6면에 지나지 않는 분량으로 내용과 형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박약재가 세워지기까지의 상황을 '신사년(1881)에 계를 닦아 재물을 내고, 12년 지나 계사년(1893)에 충목공이 공부하던 터에 書社를 다시 세웠다'고 짧막하게 서술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좌목이 사라졌기에 다시 작성하여 뒷날의 자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sup>67)</sup> '서당계좌목'에는 35명의 명단이 실렸는데, 33명이 강씨 문중의 인물이다. 나머지 둘은 이씨인데, 한 마을에 거주하던 인척으로 짐작된다.<sup>68)</sup> 따라서 좌목에 나오는 이들은 거문돌에 거주하는 강씨들을 중심으로 하고 몇몇 인척을 끼워 넣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각각 이름 아래에는 字, 태어난 해를 간지로 적었다. 여기서는 서당계좌목을 '서당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기금을 낸 이들의 명단'으로 보고 그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태어난 해와 자를 기준으로 족보에서 해당 인물을 확인하고, 족보에서 사망한 해까지 확인하여 다음의 표를 작성했다. 나이는 강수형이 '서당'을 짓기 위해 계를 모았던 것이 1881년이므로 일단 그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1911년에 계에 들어온 이들도 4명도 계에 들어올 때의 나이를 표기했다. 족보에서 계원의 계보를 『晉州姜氏世譜』(1936)와 『晉州姜氏掌令公派世譜』(1984)에서 찾아내어 강천민의 세 아들인, 姜琬·강유·姜珮의 자손을 구분하여 계파를 구분했다.<sup>69)</sup> 그 결과 李鍾震과 姜芝秀를 제외한 33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66) 강순희, 「염수재기」, 『치재집』 리.

67) 이 자료는 원본이 아닌 까닭에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원이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믿을 수 있다고 보고 분석했다.

68) 그중 李敏甲은 덕수 이씨로서 姜蕃會(1814~1879)의 사위이다(『晉州姜氏掌令公派世譜』 권 1, 회상사, 1984, 112쪽). 『제천향약』에 따르면 덕수 이씨들도 향약 운영에 참여하였다.

69) 개인 정보는 『진주강씨세보』(1938)와 『진주강씨장령공파세보』(1984)에서 기본적으로 찾았다. 2009년에 발간된 『진주강씨대동보』와 비교할 때 후자는 계보를 잘못 정리한 부분, 통째로 일부 계보가 삭제된 부분이 많아 역사 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姜秀寅이 편집한 『진주강씨세보』는 1938년에 출판했지만 1936년에 편찬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므로 문중에서는 흔히 '丙子譜'라고 일컫는다(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58-가4-30).

<서당계좌목 분석표>

	이름	계좌	생몰시기	나이	字	의병 관련 사적, 기타	가입 시기
1	姜震會	瑜	1817~1886	65	士馨		1881
2	姜達河	瑜	1824~?	58	季元	손자 수명·수빈이 의병에 중군	"
3	姜洛永	瑜	1825~1886	57	範卿		"
4	姜鼎會	瑜	1831~1892	51	置重		"
5	姜胄永	瑜	1820~1900	62	武卿		"
6	姜敦永	琬	1833~1903	49	義仁	아들 학수·난수, 손자인 명희가 의병에 중군	"
7	姜大峻	瑜	1837~1889	45	景明	(奎夏로 개명)	"
8	姜秀馨	瑜	1838~1886	44	益聞	아들 순희, 의병에 중군	"
9	姜學永	瑜	1838~1893	44	聖敎		"
10	姜大日嬰	瑜	1843~1914	39	聖瑞	(翼夏로 개명)	"
11	姜徽永	琬	1841~1893	41	漢卿		"
12	姜斗馨	珩	1843~1886	39	衡七		"
13	姜大韻	瑜	1845~1898	37	聖詩	아들 락원·교원이 의병에 중군	"
14	姜道永	瑜	1849~1886	33	景錫		"
15	姜大昭	瑜	1850~1886	32	成九		"
16	姜薰永	琬	1851~?	31	敬幸		"
17	姜河永	珩	1849~?	33	清一		"
18	姜芝秀	?	1819~?	63	尙三		"
19	姜益永	瑜	1858~?	24	致謙		"
20	姜敦永	瑜	1859~?	23	仲敎		"
21	姜秀年	瑜	1859~1920	23	聖綏		"
22	姜學秀	琬	1859~1929	23	文天	동생 난수와 함께 을미의병 중군	"
23	姜秀咸	瑜	1860~?	22	聖一		"
24	姜秀慶	珩	1854~1886	28	敬行		"
25	姜秀運	瑜	1861~?	21	秀行	(후손이 만주로 이주)	"
26	姜大夏	瑜	1863~1923	19	允中		"
27	姜秀日	瑜	1863~1920	19	聖斌		"
28	姜達熙	瑜	1875~1934	7	聖尊	(유인석 문인)	"
29	姜秀鎬	瑜	1822~?	60	景玄		"
30	李敏甲	瑜	1841~?	21	-	(德水人. 姜蓄會의 壻)	"
31	李鍾震	-	1861~?	21	季敬		"
32	姜岷秀	琬	1869~1950	43	景五		1911
33	姜垚秀	琬	1875~1922	37	景七		"
34	姜垚永	瑜	1841~1920	71	仲嶺		"
35	姜秀鍾	瑜	1875~1943	37	景國	이강년 의진에 중군	"

※나이는 계에 들어올 때(1881, 1911년)를 기준으로 함.

※족보와 좌목에 나오는 字의 한자 표기가 다를 때는 족보를 따름.

※이중진의 경우, 처가가 강유 계열에 속하므로 계좌에 '瑜'로 표시했음.

우선 처음 출발한 31명 중 확인 가능한 강씨 28명의 면면을 통해 거문돌에 살던 진주 강씨 집안이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입학조 강신의 세 아들 姜琬·강유·姜珩의 자손들이 모두 참여했다. 강완 계가 4명, 강유 계가 22명, 강후 계가 3명이다. 강유 계가 가장 많았던 것은 강당 설립을 주도했던 강수형이 강유 계였고, 강유의 자손이 가장 번성했기 때문이었을 듯하나 얼른 확인되지는 않는다. 1911년에 추가로 강완·강유 계가 2명씩 더 들어갔다.

서당계에는 姜達熙처럼 특별한 예외를 빼면 모두 성인 남성 세대주를 중심으로 가입했다. 따라서 이미 성년이 되어 가족을 꾸린 姜大暎·姜大日燾 형제의 이름이 모두 나타난 것은 그들의 아버지 姜秀八(1809~68)이 이미 별세한 뒤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姜敦永의 두 아들 강익수·강학수 중에 만이인 강익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강돈영이 아직 생존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서당계 좌목에 실린 이들의 연령대를 통해 무엇을 위하여 좌목에 참여했는지를 보았다. 처음 계를 만들 때 들어온 31명의 나이 분포를 보면 많게는 65세[姜震會]로부터 7세[강달희]까지 다양한 편이지만, 강달희를 제외하면 성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년에 속한 이들의 다수는 자신의 공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손들의 공부를 위하여 서당계에 들었을 것으로 일단 추정할 수 있다. 강달희의 경우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서당계 설립을 주도한 큰아버지인 강수형이 작은집 몫으로 그를 서당계에 넣어준 경우로 보인다.<sup>70)</sup>

결국, 서당계좌목에 참여한 인물들은 거문돌에 거주하는 각 세대를 단위로 하여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세대는 제외되었겠지만, 30세대 이상이 박약재의 설립과 운영에 힘을 보탠 셈이다. 더러는 자신의 취학에 대한 부담을 지기 위해 가입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대개는 자손의 공부를 위한 경우였을 것으로 보인다.

의병론자들이 오가던 박약재에서 학습한 이들이 의병사에 나타나는 것은

70) 족보에 따르면 강달희는 2세 때에 부친을 여의었다. 이후 백부인 강수형의 보호 속에서 성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서당계에 몸을 담았던 이들, 그들의 자제로서 의병사에 관련된 이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강돈영의 경우, 맏이인 강익수가 아우인 강난수를 의진에 보내고, 아들 강명희를 유인석의 문하에 보낸 것은 이미 검토하였다. 뒷날 이강년이 순국하였을 때 달려가 문상한 이들의 명단에도 강익수의 아들 넷(姜俊熙·姜舜熙·姜明熙·姜萬熙)의 이름이 모두 보인다.<sup>71)</sup>

아우와 함께 나란히 서당계에 들어갔던 대준의 경우도 아들 姜來遠·손자 姜聲振이 이강년의 장지에 달려왔고,<sup>72)</sup> 강대운의 두 아들 姜樂遠·姜教遠도 의병사에 이름이 보인다.<sup>73)</sup> 강수형의 아들로서 박약재 설립을 마무리한 강순희가 의병사에 자주 보이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그의 재종 강달희는 유인석의 문하에 나아가 공부했다. 좌목에 이름을 남긴 강진희의 손자 姜秀學, 姜秀年の 아들 姜來熙, 姜鼎會의 아들 姜仁永, 姜胄永의 아들 姜殷秀와 손자 姜奭熙, 姜斗馨의 아들 姜伯熙도 이강년의 죽음을 슬퍼하여 달려왔던 이들의 명단에 이름이 보인다.<sup>74)</sup>

이들 대부분이 부형의 뜻을 따라 박약재에서 척사의 논리를 공부했을 것이다. 그들은 정체성의 출발이 된 자랑스러운 조상 강유가 남긴 뜻을 따르고, 의병의 길을 걸었던 이들과 접촉하면서 실천적인 학문과 삶을 배워나갔다.<sup>75)</sup> 姜秀鍾처럼 이강년 의병에 참여한 뒤, 서당계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이런 면에서 박약재는 국권을 상실해가던 시기 거문들의 정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존재였다.

71) 『哀感錄』(고문서, 운강이강년기념관 소장).

72) 『哀感錄』(고문서, 운강이강년기념관 소장).

73) 『제천군지』, 289쪽.

74) 『哀感錄』(고문서, 운강이강년기념관 소장).

75) 더러는 거문돌 출신이 아닌 이로서 박약재에 머물렀던 이들도 있다. 단양 출신의 의병론자인 지원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강순희·강달희 등도 만년에 박약재에서 훈장으로 활동했다.

## 5. 맺음말

거문돌의 진주 강씨 문중은 조선 중기의 명신인 강유를 내세우면서 同姓 마을을 발전시켜왔다. 일찍이 정묘호란·병자호란 때 斥和를 주장했고, 북벌을 꿈꾸면서 화려한 관료 경력을 거쳤던 강유의 행적은 후손들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중요한 근거였고, 19세기에 이르러는 남인이 주도하던 남당서원에 강유를 추가로 배향하기까지 했다. 이는 노론 계열이었던 강씨 집안이 지역 사회 운영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때에도 강유의 존재감에 힘입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한말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고조되던 1881년에 강수형이 강유가 공부 하던 옛터에 강당을 짓기 위해 계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강유의 삶은 후손들에게 더욱 강조되었다.

강당의 설립은 일을 시작한 지 10여 년 뒤인 1893년에 강수형의 아들인 강순희가 마무리하였다. 그는 그가 살던 시기를 강유가 직면했던 시기보다 더 엄중한 상황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혼란의 끝에 반드시 되돌아올 희망이 있다는 가르침을 되뇌면서, 조상의 뜻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念修齋’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中華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일을 죽을 때까지의 사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는 제천의병의 구호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다.

흔히 제천의병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유증교의 제천 이주로 상징되는 화서학과 논리의 파급을 말한다. 그러나 거문돌에는 염수재 기문에서 보듯이 화서학의 논리와 잘 호응할 수 있는 정체성을 지닌 유력한 성씨 집단이 있었다. 거문돌 선비들은 뒷날 의병 노선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내적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을미의병기를 겪으면서 거문돌의 강씨 문중은 유인석의 의병 노선을 따랐다. 강관수·강순희 등이 앞장섰다. 의병 활동이 일단락된 뒤 염수재는 유인석이 새로 써준 ‘博約齋’라는 현판을 내걸었고, 문중 자제들이 대거 유인석과 사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의병론자들과 노선을 같이하게 되었다. 척사적 성

격의 제천향약에 참여할 뿐 아니라, 척사적 동약을 실시했고, 隆義契를 결성하여 화서학과의 신념을 따르고 유인석의 노선을 따르자고 다짐했다. 의병론자들이 주도한 紫陽影堂의 설립에도 앞장섰다. 따라서 뒷날 이강년 등이 의병을 다시 일으키려 할 때 박약재를 중요한 기반으로 여겼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강년의 순국 후에는 그의 전투 기록인 『창의사실기』와 遺稿·제문류 등을 모은 『雲岡遺稿』 편집을 은밀하게 수행한 곳도 거문돌의 박약재였다.

오늘의 박약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書堂稷座目’은 한말의 위기상황에서 거문돌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족보와 비교하면서 검토한 결과, 거문돌에 거주하는 주요 계보의 자손들이 세대별로 서당계에 고루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손들의 교육을 위해서, 선조가 남긴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책무감에서 삼십여 세대가 여기에 동참했다.

결국, 거문돌의 강씨 문중은 박약재라는 강당의 공동 설립자이며, 강당에 출입하는 의병론자들을 통하여 척사의 논리에 기반한 실칙적 삶을 받아들였다. 의병사에 이름을 남긴, 또는 이강년 의병장이 순국한 뒤에 순국의 현장에 달려간, 또는 이곳에 마련된 빈소에 달려와 통곡한 많은 인사도 박약재에서 실칙적 삶의 나침반을 마련한 이들이다. 더러는 의병에 종군하다가 서당계에 추가로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거문돌에서 강학수·강란수·강락원·강교원·강순희·강수종·강수명·강수빈 등 여러 의병의 현장에서 직접 달렸던 이들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며, 바로 그런 점이 박약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 투고일 : 2019. 6. 30. / 심사완료일 : 2019. 7. 16. / 게재확정일 : 2019. 7. 24.
- 주제어 : 제천의병, 거문돌, 강유, 박약재, 강순희, 이강년



❖ 참고문헌

- 『大東野乘』, 『司馬榜目』, 『輿地圖書』, 『朝鮮王朝實錄』, 『朝鮮五萬分一地形圖』(조선총독부, 1918), 『菊史集』(姜達熙), 『國譯商谷集』(姜瑜), 『勉菴集』(崔益鉉), 『松雲集』(鄭雲慶), 『習齋集』(李昭膺), 『陽菴集』(柳芝赫), 『毅菴集』(柳麟錫), 『蒼石集』(李俊), 『恥齋集』(姜順熙), 『雲岡遺稿』(李康季, 제천의병전시관 소장)
- 『全州李氏孝寧大君靖孝公派世譜』(창권사, 1983)
- 『晉州姜氏世譜』(193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58-가4-30)
- 『晉州姜氏掌令公派世譜』(회상사, 1984)
- 『晉州姜氏大同譜』(창문사, 2009)
- 『義士三戒元公乙巳倡義遺蹟』
-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 「上書」(김홍경·강수빈의 간찰, 운강이강년기념관 소장)
- 「敬通」(고문서, 운강이강년기념관 소장)
- 『書堂稷座目』(고문서, 강인수 소장)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 『長潭講錄』
- 『雲崗先生倡義日錄』
- 『影堂有司錄』(제천의병전시관 소장)
- 「紫陽影堂焚香記」(제천의병전시관 소장)
- 『朱夫子影堂營建助役記』(제천의병전시관 소장)
- 『堤川西面鄉約稷冊』(제천의병전시관 소장)
- 『哀感錄』(고문서, 운강이강년기념관 소장)
- 『張忠植日記』(장충식)
- 『한국독립운동사(자료8~19)』(국사편찬위원회, 1968~1990)
- 이구영 편, 『湖西義兵事蹟』, 수서원, 1992.
- 구완희, 『韓末의 堤川義兵』, 집문당, 1997.
- \_\_\_\_\_, 『영원한 의병장 이강년』, 지식산업사, 2015.
- 강성열, 「박약재사적비」, 『紫陽影堂百年』, 2006.
- \_\_\_\_\_, 「博約齋傳」, 『獻誠錄』, 2008.
- 구완희, 「권상하의 황강 이주와 재지사족의 성장」, 『한국철학연구』 35, 2012.

- \_\_\_\_\_, 「성재 유증교의 강학과 문인집단의 확대」, 『역사교육논집』 44, 2010.
- \_\_\_\_\_, 「한말 의병장 이강년의 생애와 『운강집』」, 『雲岡集』, 내제문화연구회, 2007.
- \_\_\_\_\_, 「정미의병기 의병부대의 연합과 갈등」, 『제천의병의 이념적 기반과 전개』, 이회, 2002.
- 권순금,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복원(대답)」, 『남한강』 2, 제천·단양민예총, 1999.
- 김상기, 「제천의병의 사상적 특성」, 『윤병석 화갑기념논총』, 1990.
- 이종훈, 「제천향교의 연혁」, 『제천향교지』, 2003.
- 이해준, 「마을사 조사와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연구』 12, 2003.
- 임세권, 「마을사의 조사와 연구」, 『민속연구』 11, 2002.
- 최재우, 「한말 제천지방 향약의 위정척사적 성격」, 『충북사학』 2, 1989.

❁ 국문요약

## 제천의병과 거문돌 마을의 博約齋

구 완 회

제천 거문돌 마을의 강씨 문중은 조선 중기의 명사인 강유를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한다. 강유는 1627년에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척화’를 주장했고, 고위 관직을 역임한 인물이다. 19세기말 일본의 침략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강씨 문중은 강유가 살던 옛 터에 문중의 강당[서당]을 짓기 시작했다.

강당은 1893년에 완공되었다. 이를 주도한 강순희는 당대를 강유가 살던 시기보다 위기상황으로 이해하고 조상의 뜻을 생각하고 몸을 닦으라는 뜻으로 ‘念修齋’라고 이름 지었다. 아울러 ‘중국문화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몰아내자’고 주장했다. 이는 2년 뒤 봉기한 제천의병의 논리와 흡사하다.

염수재는 뒷날 을미의병기의 제천의병 지도자 유인석에 의해 ‘박약재’로 개명되었다. 이 무렵 강씨 문중의 젊은이들이 유인석의 제자로 입문했고, 의병 노선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강년을 비롯한 의병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의병의 재봉기를 의논했고, 이강년과 김상태 등 의병지도자도 박약재 부근에 묵었다. 뒷날 의병론자들이 이강년의 전투 기록을 편찬한 곳도 이곳이다.

박약재 건립 때의 자료인 ‘서당계좌목’은 한말의 위기상황에서 강씨 문중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려준다. 거문돌에 거주하는 주요 계보의 자손들이 세대별로 참여했고, 그들은 자손들의 교육을 위하여, 조상의 뜻을 계승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박약재 건립에 참여했다. 결국, 강씨 문중은 강유가 실천했던 척사의 논리를 실천의 원칙으로 수용한 셈이다. 강씨 문중의 여러 인사들이 의병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 Abstract

## Jecheon Righteous Army and Bakyakjae in Geomundol Village, Jecheon

Ku, Wan-hoe

The Kangs living in *Geomundol* village, Jecheon are proud of their ancestor, *Kang Yu*(姜瑜), who is a prominent figure of the mid-Joseon period. Filling various high-ranking government posts, he insisted that Joseon fight against *Qing* during its invasion in 1627. In the national crisis caused by Japanese invasion, the Kangs began to build their family lecture hall, kind of a village school, in the historic site of *Kang Yu* in the late 19th century.

They completed the hall in 1893 and *Kang Sun-hui*(姜順熙), who led the construction, named it *Yeomsujae*(念修齋). He thought of his day as a more critical situation than *Kang Yu*'s time and insisted that Joseon respect Chinese culture and repel barbarians from Joseon. This idea is similar to the cause of Jecheon Righteous Army uprising after two years.

*Yeomsujae* was renamed to *Bakyakjae*(博約齋) by *Yu In-seok*(柳麟錫), the leader of Jecheon Righteous Army. Young people of the Kangs became *Yu In-seok*'s students and participated in the righteous army. Righteous army leaders including *Yi Kang-nyeon*(李康季) discussed their uprising in *Bakyakjae*. Later *Yi Kang-nyeon* and *Kim Sang-tae*(金尙台) were buried around there. Their comrades secretly compiled the records of their battles in *Bakyakjae*, too. buried around there.

'*Seodanggyejwamok*(書堂楔座目)' made out when building *Bakyakjae* shows how the Kangs coped with the critical situ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lineage of major Kang families living in *Geomundol* put their names on the list to educate their children and inherit their ancestors' thought. After all, the Kangs accepted the logic of repelling barbarians which *Kang Yu* had practised and as a result many of them participated in the righteous army.

Key Words : Jecheon Righteous Army, Geomundol Village, Bakyakjae, Kang Yu, Kang Sun-hui, Lee Kang-nyeon